

유튜버 콜라보 진안여행 영상 인기 보훈명예수당 도내 최고액 지원

진안 매력 소개... 가요이 키우기 60만·이시영 탐티 8만 조회수 돌파

진안군은 16일 국내 유명 유튜버의 진안여행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진안군의 숨은 매력을 알리기 위해 추진한 유튜버 가요이, 이시영과의 콜라보 영상이 각각 60만, 8만 조회수를 넘어섰다.



진안 미아산 탐사 돌탑군을 보여 놀리는 가요이 모습



구봉산에 올라 진안고원 풍경에 감탄하는 이시영 모습

특유의 맑고 귀여운 페이스와 예측 불가능한 매력으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요이 키우기' 채널의 가요이는 지난해 말 진안여행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가요이는 미아산, 은수사, 연인의 길, 수선루, 홍삼스파 등을 누비며 진안에서 느낀 점을 솔직히 털어놨다. 구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안에 대해 잘 몰랐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다"며 진안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다. 또한, "웬만한 홍보영상보다 이게 훨씬 진안 놀러가고 싶게 한다"며 "진안 공무원들은 출근할 때마다 가요이 있는 방향으로 큰절을 올리도록 하십시오"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은 "신뢰감을 주는 유튜버의 이미지와 영상 속에서 보여주는 다채로운 매력이 더해져 좋은 시너지 홍보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군 자체 유튜버 채널 운영과 함께 유튜버들과의 콜라보 프로젝트를 통해 진안을 전국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가요이는 특히 진안시장과 청년블, 카페, 먹거리 등을 소개하며 1박2일, 2박3일 진안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가요이의 활약으로 해당 영상은 공개와 동시에 10만 조회수를 넘겼고, 공개 20여일만에 6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배우 이시영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해 12월 올린 구봉산 등산 영상도 조회수 8만을 넘어섰다. 100대 명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이시영은 구봉산을 1봉부터 9봉까지 완주하고, 용담호를 둘러보며 진안의 매력을 알렸다.

한편, 화제가 되고 있는 두 영상은 '가요이 키우기' 채널(<https://www.youtube.com/@Yoki>), '이시영의 탐나 티비' 채널(<https://www.youtube.com/@lessyoungtv>)을 통해 볼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군비 직불금 지원으로 농가 활력 돕는다

농업인 소득보전 위해 지급

무주군이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농가 군비직불금을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군비 지급대상은 2022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원 대상자 가운데 무주군에 주소와 무주군 관내 농지(0.1~5.0ha 제한)를 경작하는 농업인 5,000여 농가로, 지급면적은 3,700ha 규모다. 지급단가는 ha당 26만 원으로 총 9억 6천200만 원을 18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에 국비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78억 원을 지급했으며, 전북 농민 공익수당을 도비와 군비로 3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2023년 기본형직불금은 2월에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3~4월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검증 및 현지확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무주군 농업정책과 김민식 과장은

"코로나19와 병충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농에 전념을 다해주시는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군비 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가가게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가에 대한 군비 직불금은 농업활동 등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지원금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장수군이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지붕 및 담장 보수, 외부 도색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공동주택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6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2~5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 선정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최종 선정된다. 최훈식 군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과 노후 이미지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월 13만원으로 인상·도내 최초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 시작

진안군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을 2023년 도부터 도내 최고액인 월 13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또한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 특수임무 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등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도내 최초 시행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세대가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현재 진안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는 22년 12월 말 기준 875명으로 △참전유공자 635명, △전상·공상 군경 123명, △전몰·순직군경 44명, △고엽제후유의증 42명, △기타 31명이다.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세대가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가져

무주군이 설날을 앞두고 '2023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져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으로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확산시켜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에 군은 16일 오전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각 실과소원 부서장,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무주반달별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주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10% 할인된 가격으로 각종 용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날 참여자들은 장보기 행사에서 제수용품 및 생활용품 등을 구입했으며, 무주사랑 상품권 이용을 권장하는 홍보와 함께 지방물가안정 캠페인도 아울러 전개했다. 이어 17일은 설천삼도봉시장에서, 20일 안성덕유산시장에서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계속된다. 이번 장보기 행사 동안 상인들은 무

주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10% 할인된 가격으로 각종 용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황인홍 군수는 "전통시장이 회복돼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며 "정기 넘치고 값싸며 품질 좋은 농산물과 생활용품이 즐비한 지역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설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진안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민간전문가 3명과 진안군청, 진안소방서와 합동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설 연휴기간 이용객이 많은 시외버스터미널 및 고원시장에 대하여 건축, 전기, 가스, 소방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건축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누수 등 결함 발생여부, △전압계, 전력계의 동작 상

태와 과부하, 과전압 등 확인, △가스 차단기, 경보기 등 임의차단 및 정상 작동 확인,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설치 및 작동여부 확인 등 안전사고에 대한 항목이다. 안전점검 결과 결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고,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통보해 해당 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무주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은 농지구입,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 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의 농업창업자금과 최대 7,500만 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연 1.5%의 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대출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격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뒤 무주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하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 귀농인은 오는 2월 13일까지 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경태 귀농귀촌팀장은 "농업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으로 귀농인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귀농인의 소득 창출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귀농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창구 운영

장수군이 202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따라 원거리 신고납부자를 위한 납부 창구를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납부 창구는 남원세무서 출장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법인 과세자 대상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제출서류 등을 갖춰 장수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로 제출하면 원거리인 납입세무서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